



Archdiocese  
of Toronto

Catholic Pastoral Centre  
1155 Yonge Street  
Toronto, Ontario M4T 1W2  
T 416.934.0606  
www.archtoronto.org

프란시스 레오 대주교 강론  
토론토 대주교  
2023년 9월24일 관리직 주일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진심으로 존중하는 덕입니다. 품위와 가치에 걸맞지 않은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견해는 정당합니다. 공정의 개념은, 인간으로서 우리 DNA의 일부분이며 우리 모두는 존중될 필요가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이를 대하심을 볼때, 우리의 관점과 입장에서 본 주님의 행동과 태도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숭고하고 신성한 배려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예언자 이사야 (55,8-9)의 목소리를 통해 하느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는 항상 심각한 부당함을 저지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각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가? 세상의 구원자의 말씀과 행동에 내 신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가? 나의 행동에 복음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 항상 그리스도의 영감과 계시에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한 조각씩 나누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나도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살피는가? 예수님과 마음이 잘 맞으며, 정기적으로 주님의 것에 나를 맞추고 있는가? 질문들이 많은 것은 틀림없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선택이 흘러 나오는 곳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고 있는지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적절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가슴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 아름다움은, 사랑받고 있는 자녀인 우리들이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자애로운 아버지를 부를 때 그분은 자비, 친절, 선, 동정, 거룩함과 위대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의 시편 14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요일이 다 그렇지만, 영원하시고 가장 높으신 사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매주 부활절인 오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통해 경배 찬미드리기 위해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주님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 주 일요일은 더 의도적인 방법으로 **관리직 주일**을 기념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의 선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부지런히 개발하며, 우리 모두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측면들인, 하느님의 관대함과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하느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인류애가 무엇인지,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천국으로 가는 길과 같은, 하느님 나라의 숭고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비유 중 하나입니다. 연중 제25주일에 듣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는 (마태 20,1-16) 각각 여러가지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 각자를 축복해주신 스승의 제자로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명백하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널리 퍼뜨리고 강하게 하기 위해, 관대하고 책임감있게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하루 중 각 다른 시간에 일꾼들을 고용하여 포도를 수확했기 때문에 날이 저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온종일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겨우 몇 시간만 일을 한, 고용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품삯을 받은 투덜거리며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옆친 데 댈친 격으로 맨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았습시다! 우리는 거의 “이건 불공평해요!” 라는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온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말한 그대로 품삯을 치루었습니다. 그는 단지 훨씬 더 관대하기로 마음먹고 마지막 시간에 나타난 사람을 포함한 모두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정의로운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시다만 하느님의 관점에서 관대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분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는 작거나 하찮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으로 마음이 좁게 되는 것을 피하며 가슴을 피고 우리 자신의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시다. 마음이 작은 것은 멋진 특성이 아니며 덕목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너그러움은 인간의 너그러움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은, 우리가 이세상에서 가지고 즐기고 있는 모든 은총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초대받았습시다. 삶이라는 놀라운 선물 그 자체는 과분하게 무상으로 주어졌습시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다양한 정신적, 지적 재능을 포함하여, 자연적 육체적 재능과 능력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주님, 성령께서 무상으로 나눠주신 선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삶은 성령의 선물로 지탱된다. 이 선물은 성령의 이끄심에 기꺼이 따르는 항구한 마음가짐이다.” (1830)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관리직 주일은 단지 교회 또는 가치 있는 대의명분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습시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모두 나누어 줄때까지, 우리의 사랑과 친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마음 한 조각 그리고 또 다른 한

조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받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닌 주는 사람으로서, 일 분, 한 시간, 매일을 살아갈때, 안에 있는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며 주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야보고 성인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1,17)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묵상해 봅시다. 세례성사를 통해 새 삶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요. 각자의 삶에서 가장 성스럽고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의 성전, 성스러운 모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 위해 성모님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부터,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서, 향주덕인,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듯, 우리 안에서 차례로, 건진 성사를 통해 더욱 튼튼해지고 더욱더 우리 안에 불 붙는,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성령칠은 선물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가톨릭 교리서(1832)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영원한 영광의 첫 열매로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완덕이다.” 라고 가르치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잇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목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넘쳐흐르는, 초자연적인 관대함의 종류를 그저 살짝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의 굉장한 영웅들과 성인을 생각하면 감명을 받고,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너그러움을 반영하는 그들을 본보기로 따르도록 격려 받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우리의 삶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범주의 영적인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카리스마라고도 부르는 은사는 거룩함과 섬김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나누어 주신 이 다양한 선물들은 우리 자신의 신성화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세 향주덕과 성령칠은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상의 주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바오로 성인이 보내신 편지에 몇 가지를 언급하셨지만, 은사의 완전한 목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이고, 무수히 많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 각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관리직은, 이러한 특징을 식별하고 개발하며 다른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방언과 예언, 그리스도교 결혼과 치유와 기적, 환대와 봉사, 식별과 관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은사는 교회가 형성될 때만 주셨다가, 하느님께서 교회 구성이 얼마큼 갖추어졌을 때는 그만 주시기로 하신게 아닙니다. 이걸 진리와 거리가 멉니다.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은 은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며, 모든

계신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나누어 주신다. 그러한 은사는 뛰어난 것이든 더 단순하고 더 널리 퍼진 것이든 교회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고 유익한 것이므로 감사와 위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인류의 빛, 12). 좋은 소식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하느님의 은총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믿을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권한을 주기 위해,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정으로 영향력 있고 생명을 주는 특별한 능력인, 우리의 삶속에 존재하는 은사를, 우리 모두가 분별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들은 나누어 주기 위해 교회라는 신비한 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할당하는 것은, 서품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의 의무입니다. 사실, 우리의 주님은,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숙하고 조화롭게 함께 일하도록, 이러한 특정한 선물들을 통일하고 권장하기 위해, 사도들과 후계자들에게 통솔력과 지도력의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인 우리들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특정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독창적인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찬미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운명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만들어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참조. 로마12).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독특하고 재능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모든 것,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타고난 재능, 기술과 경험을, 그분을 위해 내어 놓습니다. 그분의 더 큰 목적과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은사는 하느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하느님이 주신 권한의 특별한 특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은사에서 나오는 보살핌은 우리 교구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우리에게 활력을 주며, 우리의 일상을 기쁨과 자유와 의미로 채웁니다. 자신만의 은사를 분별하며 더 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도 이해하고 기념하도록 도와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학대전에서 (IIaIIae, 133) 소심함과 좁은 마음의 악덕 혹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마음의 결핍을 이야기 합니다. 그는 하느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개발하기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각자의 삶 안에서 강조하며 주님께 경의를 표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도구인, 관대함의 미덕을 이야기하며 악덕에 반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천상의 박사라고도 불리는 이 성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영혼의 위대함으로 인해 더 위대한 일을 하듯, 소심한 사람은 영혼의 작음으로 인해 위대함으로부터 움츠러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크고 너그러움과 마음을 주는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그러움을 바탕으로 관대함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는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역할인, 복음을 전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 마태28).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은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구 공동체안에서 관리직은 은사를 식별하고 그것들을 아낌없이, 겸손하게,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것은 수표를 쓰거나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을 뜻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은사를 식별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오로 성인이 코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느님의 초월적인 사랑에 일치가 되고 모든 것 중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참조. 1 코린 13). 성령께서 자유롭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들을 사용하기로 한 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공동체 모두는 진정으로 멋지게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 본당의 생활과 각자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더 밝게 빛낼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관리직 주일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하루 하루 조금씩 더 마음에 새깁시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관대해집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본보기인, 성모 마리아께서도 여기에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그분은 항상 마음을 열고 성령의 선물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데 관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주님의 명하심에 “네”라고 응답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로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갓 혼인한 부부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합니다(참조. 요한 2). 어떻게하면, 각자의 삶과 공동체의 생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총을 책임감 있고, 기쁘고, 유익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숙고하면서 이제 지금 성모님께 마음을 돌려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